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워크숍

정읍시는 정읍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 간 우수 사례 공유와 소통을 통해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 내 13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위원과 읍면동 담당 직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신임 운영위원 위촉과 우수작은도서관 도지사 표창 전수, 우수 사례 발표, 정읍시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수성작은도서관의 이영복 씨 등 모두 14명의 신임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고 2016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상동작은도서관과 장려상을 수상한 상교작은도서관에 대한 표창 전수도 이어졌다.

정읍에는 모두 13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모두 6만1천여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작은도서관은 연간 100개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연간 12만8천여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 문화사랑방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부안군 보건소가 지역 내 의료기관 안전대진단과 자동심장충격기 일제점검을 이날 중에 실시한다.

의료기관 안전 대 진단은 2017년 국가 안전 대 진단의 일환으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6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전 대 진단은 의료기관 자체 점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의료법 관련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의료기관 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특정관리시설물과 시범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점검도 포함된다.

특히 부안군은 이번 안전 대 진단을 통해 보안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처분 등 적극 대처해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안군 보건소에 신고된 자동심장충격기 52개(의무기관 39개, 의무기관 외 13개) 전체에 대해 정상작동 및 관리자 지정 여부, 분체 및 부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자체 점검해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보고토록 했으며 자체점검 보고가 되지 않는 기관은 현지점검 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행복한 노후 위한 사회활동 지원

김제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35개 맞춤형 사업 개발

김제시는 역동하는 김제! 일하는 보람! 행복한 노후! 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6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은 사업 참여 어르신 360여명과 관련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에 이어 역동하는 김제! 일하는 보람! 행복한 노후! 라는 주제로 2시간의 소양교육을 가졌다.

김제시는 올 해 40억원을 들여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김제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35개의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19개 읍면동과 김제시니어 클럽을 비롯한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1,874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도에는 10여년만에 활동비(인건비)가 2만원 상향조정된 월 22만원으로 하루 3시간씩 월 10일을 근무하게 되며 활동비 상향 조정으로 금년에는 2,352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 작년보다 약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김제시 인구의 2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

리를 발굴하여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은 빈곤, 질병, 부양, 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립문제 등을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며 건강회복은 물론 소득 창출로 안정된 노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신의 풍부한 연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 고취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성과관리 운영·평가기본계획 확정

최종 18개 전략목표·222개 지표 합의·도출

김제시는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비전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2017년도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성과관리(BSC) 시스템 도입 6년차를 맞은 김제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서 성과관리 전문가를 초청, 지표고도화를 위한 실무교육과 함께 추진성과를 진

단하고 공유한 바 있으며, 부서 실무 담당 직접 면담 등 2차례의 지표컨설팅을 거쳐 최종 18개 전략목표와 222개 지표를 합의·도출 했다.

또한 2017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표중 달성이 어려운 고난이도, 도전성, 노력도 등이 성과에 연계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높였고, 지표 성격 평가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렸으며, 부서환경역량평가 방식을 신

규 도입하여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 합동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공약사업, 삼각농정 등 전북도 3대 핵심사업과 지표 연계율을 높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했다.

이들 김제시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읍면동 만족도 조사 및 부서 주요정책 평가를 9월에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강화해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중국어문화원, 중국어 교실 유치원생 확대 운영

부안중국어문화원에서는 관내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을 유치원생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국문화원은 이번 유치원생 중국어 교실은 해바라기 유치원 등 7개 반을 대상으로 관내 유치원 8개소에 150여 명이 참여해 계획이며

부안중 국문화원 전실에서 매주 월·금요일 1회당 15명씩 총 10시간 가량 진행된다. 특히 부안중 국문화원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중국어 교육을 했으나 군민에게 다가가는 부안중 국문화원이 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

매주 월·금요일 15명씩 진행

운영을 하려고 중국어 교실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또 3월 중순에는 군민을 대상으로는 중국어기인 '얼후(매주 화요일 오후 3시)'와 중국체조인 '태극권(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보건소, 24일까지 의료기관 지도·점검

정읍시보건소가 24일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과 쾌적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 지역 내 의료기관 149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점검 사항은 신고 사항 임의 변경 여부, 중사 인력 적정 여부, 무면허 의료 행위 여부, 진료 기록부 작성 서명 여부, 의료 기관 세탁물 처리 적정

여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적정 관리 여부,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의료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의료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이고 일부 병·의원의 불친절 민원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친절 서비스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문화가족센터, 부안행복공동체 운영

결혼이민자 15명 대상·11월 까지 매주 1회씩 운영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돕고자 부안군이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부안을 아담사거리 부안농약보존회 연습실에서 매주 1회씩 운영된다.

부안행복공동체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결혼이민자 및 지역 일반인들이 어울려 우리의 전통악기인 풍물을 배우며 다문 화적 감수성을 표현,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고 서로 격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부안행복공동체는 세계유네스코에 지정된 부안농악을 배우며 한국의 아름다운 농악문화를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 집안일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농악이라는 악기를 통해 고국에 악기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며 현장학습과 공연관람 등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쌀 변동직불금 418억원 지급

김제시는 쌀 소비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에 사용되는 변동직불금이 지난해 201억 원 대비 두배 증가한 418억원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이번 2016년 변동직불금 단가는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하고 표준생산량이 63가마인 1헥타르(ha)당 지급금액은 211만437원으로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대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는 제도로 고정·변동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고정직불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이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변동직불금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나서

정읍시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놀이 시설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6일부터 24일까지 정읍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103곳에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놀이터나 어린이 놀이 시설의 노후와 부식도로도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어린이

이집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어린이 놀이 시설 내 장애물 적재, 바닥재의 균열이나 패인, 구조물의 변형(휘어짐, 틀어짐, 부식, 녹 발생 등), 볼트와 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 완화제(모래, 고무) 상태 등이다.

특히 자체 점검과 정기검사 그리고 안전교육 실시와 보험가입 여부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